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한 질적 연구*

김성원(총신대학교/조교수)

sungwon1331@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가 이해하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여 유아기 신앙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 17명을 면담하였다. 10개의 면담 질문을 통하여 유아들이 이해하는 '믿음'과 '교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믿음을 기도, 찬양, 예배 등의 종교적 행위, 선행의 실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해했다. 면담 중 유아들은 풍부한 성경 지식을 드러냈고 신학적 용어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모, 사역자 또는 친구를 신앙의 모델로 선택했다. 유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 영적인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 신앙과 관련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 및 유아 신앙교육을 위한 실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유아 신앙, 질적 연구, 면담(인터뷰), 믿음, 교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 8037639).

I. 들어가는 말

전인 발달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에서 영성은 중요한 개념이고 실체나 일반 교육현장에서 영성교육의 실천은 어려운 형편이고 심지어 기독교 사역자들조차도 유아기 영성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정정미, 2010). 현대교육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발달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발달심리학은 유아기의 영적 차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김정신, 2004; 정정미, 2010). 이처럼 유아들은 자신을 형성해 가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다(김정신, 2002). 헤이와 나이(Hay & Nye, 2011)는 어린이 영성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를 골드만(Gold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처럼 God-talk(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경향)나 피아제의 발달이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교육에서 인간의 본질적 측면인 영성을 무시해 온 경향이 현대의 많은 위기와 비인간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김정신, 2002).

유아는 발달적 측면에서 독특성과 한계를 지니기에 ‘신앙’을 주제로 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유아의 신앙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 방법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있으며 내면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가 있는 양적 연구를 대체할 유아 신앙에 관한 질적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민시인·김미숙, 2011). 유아의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인을 통해 발달하는지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연구대상으로 유아나 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사역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김성원, 2020). 이와 같은 연구 동향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성 또는 신앙에 관한 유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신앙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유아들이 인식한 믿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연구 질문 2. 유아들이 인식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II. 유아 신앙에 대한 이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영적인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한 코울즈(Coles, 1990)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숙고할 수 없는 많은 영적 호기심을 아동들에게서 발견하며,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역량이며,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정신,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험과 주장은 교육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유아의 영성 연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본 연구 역시 가능성을 기대하며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하여 유아를 면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유사어가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김국환(2006)은 믿음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에 이루어짐의 확신과 이에 대한 신뢰적 고백 행위로 정의하면서 신앙은 믿음보다 심리적으로 더 복잡하며 믿는 것에 대한 이성적이며 동적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믿음이 신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적 신뢰의 상태라면 신앙은 믿음을 수반하는 영적 앎의 인식행위라고 구분하였다. 반면, 장화선(2002)은 ‘신앙’이 성경에서 주로 ‘믿음’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믿음과 신앙, 개혁주의 관점의 영성을 동의어로 간주하여 교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측면에서 어린이 영성교육을 선도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유스트(Yust)는 어린이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theodidacta) 존재’로 이해하면서, 의도적인 학습과 성인의 본보기를 통해 영적 인식과 성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유선희, 2013에서 재인용). 인지심리학자들은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가 직관적이며 전조작적인 인지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고의 한계성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종교적 혹은 신앙적 사고의 특징이 밝혀지게 된다(장화선, 2011). 지난 20세기 기독교교육은 주로 피아제의 인지주의적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어린이의 영성 및 초월성 등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과 전인격적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유선희, 2013).

개혁주의 교육신학에 기초한 어린이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말씀, 믿음, 경건의 삶으로 볼 수 있다(장화선, 2011). 어린이 영성은 어린이가 예배 가운데 느끼는 분위기와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고 재현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통해 형성된다(주연수, 2019).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은 유아의 신앙이 가정의 협력(부모의 지원, 조부모의 지원, 부모교육),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따뜻한 교회의 분위기, 가정과 교회의 연계된 노력, 주중 교육기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김성원, 2020).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은 신앙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정서적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가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 상징, 몸짓은 이후 신앙, 하나님, 영성 이해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새길 영적 인상을 형성한다. 유아가 교회력의 역사와 리듬, 예배와 공동체의 예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역사에 노출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앙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Beckwith, 2004).

학술지 중심으로 유아의 신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색한 결과, 골드만이

나 파울러(Fowler)의 단계이론에 매이지 않으면서 유아를 면담하고 그들의 생각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연구는 교회 주일학교, 기독교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45명의 어린이를 면담한 장화선(2002)의 연구인데, 연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 성경과 교회의 개념 등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유아들은 좋은 분(36명), 착한 분(15명), 우리를 사랑하는 분(9명), 모름(29명)이라고 답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어린이가 하늘나라 혹은 마음에 계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좋은 분(25명), 착한 분(11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12명), 하나님의 아들(9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6명), 모름(15명)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래전에 수행되었고 많은 어린이의 단답식 반응을 유목화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영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영성 배경의 경험적 설명을 창조하는 것이라 한 헤이와 나이(2011)의 의견을 수용하여 소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유아 신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유아 17명을 면담하였고,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아는 교회의 사역자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표집되었다. 연구참여자과 부모에 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월령	성별	부모 신앙(직분)
연구참여자 1**	81개월	여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전도사님
연구참여자 2	80개월	남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3	80개월	여	아버지-성도; 어머니-성도
연구참여자 4**	79개월	남	아버지-불신자;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5	79개월	남	아버지-목사님; 어머니-사모님
연구참여자 6	79개월	남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전도사님
연구참여자 7	73개월	여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8**	72개월	남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9*	70개월	여	아버지-목사님; 어머니-사모님
연구참여자 10	68개월	여	아버지-목사님; 어머니-사모님
연구참여자 11*	68개월	남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12	65개월	여	아버지-불신자;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13**	65개월	여	아버지-목사님; 어머니-사모님
연구참여자 14	64개월	남	아버지-목사님; 어머니-사모님
연구참여자 15	63개월	여	아버지-성도;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16	62개월	여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집사님
연구참여자 17	61개월	여	아버지-집사님; 어머니-전도사님

* 유아들은 연구자와의 면담을 끝까지 할 수 없어 남은 부분을 어머니가 면담한 녹음 파일로 전달받았고, 연구자가 전사한 후 어머니의 확인을 받았다.

** 유아들의 면담은 어머니가 진행하였고, 면담을 실시한 어머니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 교수, 또는 전도사님이었다. 녹음 파일을 받아 연구자가 전사한 후 어머니의 확인을 받았다.

2. 면담법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등이 있다(성미영 외, 2017). 어린이의 신앙을 연구하는 방법 역시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하며 신앙과 관

련된 특성을 찾아내는 관찰법과 연구자가 신앙과 관련된 문항을 준비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질문법 또는 면담법 등으로 유사하다(장화선, 2011). 이중 면접법은 질문지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응답률이 높으며 누락되는 질문이 거의 없고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황해익·최혜진·권유선, 2019). 아울러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실시 가능하며 내면의 심층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성미영 외, 2017). 만약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 주관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 면담이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고, 영유아 면담 시 한계가 따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그들과의 면담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eidman,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한계를 가진 면담법을 사용하여 유아들의 신앙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한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너는 예수님을 믿니?
- (2)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 (3)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
- (4)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이니?
그 이유는?
- (5)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니?
어떻게 다를까?
- (6) 교회는 어떤 곳이니?
- (7) 교회에 올 때 좋은 점은?
- (8) 커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 (9)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 (10) 예수님 믿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19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다. 10개의 면담 질문을 제시했으며 유아의 의견과 경험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졌다. 유아와의 면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는 달리 소요된 시간이 짧은 편이었고(평균 20-30분, 그림 그리기 10분 추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세디어만(Seideman)이 예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을 면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유아 중 2명은 면담을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 없어 남은 질문은 어머니가 면담한 녹음 파일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연구자를 만난 적이 없는 유아 중 4명은 어머니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어머니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 교수, 또는 전도사로 면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자들로 판단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녹음 파일을 받아 즉시 전사하였고 어머니에게 보내 확인받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아와의 면담 소요시간은 14분부터 1시간 5분까지로 유아의 경험, 사고력, 표현력, 면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했으나, 면담 시간의 길고 짧음 여부와 관계없이 유아들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적절한 답을 해주었다.

4. 자료 분석

면담 후 전사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이전에 연구참여자 어머니에게 전사된 자료를 보내고 질의응답 및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자료 분석의 첫 단계로 전사본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고 유아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경험,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전체와 연구

참여자별 검토를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주제를 묶고 전사본을 다시 읽으면서 범주명을 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가 생각하는 믿음과 교회에 관한 의미를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은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확보되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 신학, 기독교교육 학위를 가진 기독교 유아교육 전공자로 현장에서 20년 이상 영유아 또는 유치부 사역자로 섬겼고 기독교 유아(아동)교육을 여러 해 교수한 경험이 있다. 유아와 아동의 신앙, 기독교 유아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기독교인 교사에 관한 다수의 연구물을 출간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 둘째, 동료 지지집단 구성을 구성하였는데,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20년간 어린이 사역을 하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고 자료 분석과 기술에 있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면담 결과를 연구참여자의 어머니에게 귀환하여 확인받았다. 연구자는 전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의미를 질문하였고 자료 분석 내용을 확인받았다.

IV. 연구 결과

유아의 신앙에 관한 면담 질문 10개를 가지고 유아들과 면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믿음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유아에게 믿음이란 종교적 행위, 선행의 실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와 기능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갖거나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부모, 사역자 또는 친구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유아들은 교회를 종교적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인식하였고 교회를 통해 영적인 기쁨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행위나 사람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는 경험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이를 구분한 범주는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내용 범주화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오고 기도를 안 하고 매일 말씀을 안 보고 자고 이러잖아요. (Q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고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 오고.. (연구참여자 16) · (Q 교회 친구 xo이는 왜 믿음이 좋은 아이지?) 떠들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어서요. (연구참여자 12) ·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요. (연구참여자 5, 6, 15) 	종교적 행위- 기도, 찬양, 예배하기	믿음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하게 살아요. 목소리로 착하게 말해요. (연구참여자 10) ·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를 끼쳐요.. 저는 친구가 하고 싶은 도구를 양보하기로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은 도구를 안 빌려주기도 해요. 욕심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6) · (Q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친구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를 존중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7) 	선행의 실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요. (연구참여자 7, 8, 13, 16, 17) · (천국은) 죽어야지.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연구참여자 10) ·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개 념	하위 범주	범 주
<p>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연구참여자 1, 6, 15) · 내가 만약에 커피숍 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라고 커피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 따라 선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연구참여자 5)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연구참여자 7) 	<p>삶의 방향과 사명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혜 (Q 은혜란?)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 (연구참여자 3) · 하나님/예수님을 섬기는 것 (연구참여자 1, 6, 15)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지혜롭게 하는 것 (연구참여자 5) · 모세는 애굽에서 일하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비석을 세웠고 기드온은 양가죽..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삼손 힘 자랑하고 블레셋 나라를 혼내주고.. (연구참여자 6) ·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여호수아랑 모세, 데브라(드보라) 그리고 삼손 (연구참여자 8) 	<p>성경 지식, 신학적 용어의 습득 및 내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워십팀), 아빠(찬양 인도자) (연구참여자 6) · 아빠는 목사님이시고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연구참여자 9) · 엄마는 맨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빠는 하나님 전해서요. (연구참여자 14) · 양사슴(담임) 목사님 (연구참여자 9) · 전도사님이요. 교회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매일 오시거든요. 교회 매일 자주 나오면 예수님 잘 믿어요. (연구참여자 16) · 사랑이 언니요. 착한 언니라서.. (연구참여자 10) · ㅇ이는 영~ 성경 말씀만 들을 때면 자세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p>신앙이 좋은 사람/모델-부모, 사역자, 친구</p>	

개 념	하위 범주	범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하고 기도하고 (연구참여자 1, 2, 4, 7, 8, 13, 14, 15, 16, 17) 찬양하고 (연구참여자 4, 6, 8, 12, 13, 15, 17) 	경배의 장소	교회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연구참여자 3)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14) 하나님을 믿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사님의 하나님 말씀 듣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연구참여자 6) 	영적인 기쁨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 먹는 것 (연구참여자 1, 8, 15) 다음세대에서 게임하는 것 재미있어요. (연구참여자 5, 16) 이야기가 끝날 때 텔레비전으로 동화를 보여줬어요. 재미있었어요. (Q 어떤 내용이었니?) 하나님이 누구 남자한테 “머리를 자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쁜 여자에게 남자를 잡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방법을 말해서.. (연구참여자 3) 	내가 좋아하는 일로 즐거움을 느낌	

1. 믿음의 의미

면담을 통해 나타난 유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반응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적 행위: 교회 출석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예배드리기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믿음의 정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유아가 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회 오는 것(연구참여자 16), 예배드리기(연구참여자 5, 7), 기도하기(연구참여자 1, 4, 5, 7, 16), 찬양하기(연구참여자 1, 6, 7, 13) 등이 믿음의 표

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회 다니고, 기도, 찬양, 예배드려요. (연구참여자 7)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4)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오고 기도를 안 하고 매일 말씀을 안 보고 자고 이러잖아요. (연구자 질문-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고 그러고 교회를 주일날 오고... (연구참여자16)

교회를 안 다니고 다니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귀찮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재밌어해요. (연구참여자3)

또한, 유아들은 종교적 행위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보기도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요.
(연구참여자5)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이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연구참여자15)

유아들이 믿음을 종교적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더 높은 연령대의 어린이나 성인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며, 종교적인 행위로 한 사람의 믿음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유아들의 이러한 인식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아닐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이며 구별된 종교적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

2) 선행 베풀기,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유아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즉 삶 가운데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돕는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고 보았다.

착한 사람이예요. 초콜렛 15개 갖고 있을 때 15명에게 나눠주는 것

(연구참여자2)

(연구자 질문-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친구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를 존중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17)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를 끼쳐요... 저는 친구가 하고 싶은 도구를 양보하기로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은 도구를 안 빌려 주기도 해요. 욕심이 많아요.

(연구참여자6)

또한 믿음이 좋은 주변 인물과 성경 인물을 선택하는 근거가 선행을 베푼 점에 기초함이 나타났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친구를 선택할 때 잘 도와주거나 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ㅅㅇ이는 막 귀엽고 레고할 때 보물 많이 찾고 착하게 해주어서, 그리고 ㅇㅇ이는 나랑 딱지도 해주고 자기 카드로 놀아줘서요. (연구참여자2)

ㅇㅇ이는(교회 친구) 착해요. (연구자 질문- 어떻게 착한지 말해주겠니?) 말이 예쁜 거 같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개가 말해요.

(연구참여자3)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줬어요. (연구자 질문- 그 사람 이름은 뭐지?) 아보 아본 (연구자 질문- 아브라함?) 네~ (연구참여자12)

3)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유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개념을 보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요. (연구참여자, 1, 7, 8, 10, 13, 16, 17)

(천국은) 죽어야지.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요. (연구참여자10)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1)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개념 외에도 신앙적인 행동과 특성이 함께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유아들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요. (연구참여자5)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3)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6)

4) 삶의 방향과 사명 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아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커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니?”라는 질문에 유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요. (연구자 질문-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하란 것을 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연구참여자7)

봉사랑 도와주는 거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12)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 따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연구참여자5)

내가 만약에 커피숍 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라고 커피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3)

5) 성경 지식, 신학적 용어에 익숙함

유아들은 성인들이 사용할 만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풍부한 성경 지식을 드러내 보였다. 유아들이 사용한 신학적 용어는 ‘섬기기’, ‘구원’,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등이었다. ‘섬긴다’는 표현을 쓴 연구참여자 1과 6이 같은 교회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 또는 유치원에서 배워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섬기는 것 (연구참여자1)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을 잘 읽고 찬양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연구참여자6)

예수님 섬기는 것이요. (연구자 질문-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니?)
예배로, 기도랑, 찬양 (연구참여자15)

은혜를 갖는 것이요. (연구자 질문- 은혜란 무슨 뜻이니?)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요. (연구참여자3)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구참여자1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요. (연구자 질문-
7살 사르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님한테 기도해요. (연구참여자5)

소수의 유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는데, 특별히 성경 인물의 이름과 그들의 신앙 업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유치부에서 스테반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서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불마차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잘 믿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4)

모세는 애굽에서 일하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비석을 세웠고 기드온은 양가죽...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삼손은 힘 자랑하고 블레셋 나라를 혼내주고...

(연구참여자 6)

6)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족, 목회자, 친구

유아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물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가족, 목회자, 친구 등이었다. 부모를 언급한 모든 유아의 아빠나 엄마는 사역자였고, 자신이 커서 되고 싶은 사람의 롤 모델로 엄마를 선택한 유아가 있었다.

아빠요. (연구자 질문- 왜?) 목사니까. (연구자 질문-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 줘요. 그리고 엄마요.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어요.

(연구참여자5)

아빠요. 아빠는 하나님 전해서 그렇고 엄마는 맨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해요.

(연구참여자14)

나도 엄마처럼 전도사님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도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연구참여자1)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담임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두 명 모두를 언급

한 유아들이 있었는데, 네 명 중 세 명은 매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유아들이었다. 담임목사님과 유치부 전도사님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대통합 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들은 매주 예배 중에 만나는 담임목사님과 어린이 설교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도사님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모스 목사님이요. 서모스 목사님은 목사이시고 설교를 하셔서요. 그리고 이즈흠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도 다음세대 할 때 설교 말씀을 하세요. (연구참여자7)

이즈흠 전도사님이요. (연구자 질문- 이유는?) 전도사님은 원래 저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교회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매일 오시거든요. 교회 매일 자주 나오면 예수님 잘 믿어요. 서모스 목사님이요. (연구자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전하실 때 응~ 말하는 인물이 목사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 같아서요. (연구참여자16)

양스흠 목사님이요. (연구참여자 9)

유아부 전도사님이예요. (연구자 질문-왜?)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요. (연구참여자15)

친구를 언급하는 유아들이 절반가량 되었다. 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요구(필요)를 들어주기에, 착하기 때문에 또는 바른 종교적 행위의 분을 보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ㅎ미이요. ㅎ미이는 나랑 딱지도 해주고 자기 카드로 놀아줘서요. (연구참여자2)

사랑이 언니 (연구자 질문-왜 그렇게 생각해?) 착한 언니라서

(연구참여자10)

스ㅇ이는 떠들지 않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요. (연구참여자12)

교회 친구 말해도 되나요? (그럼~) ㅇ리이요. ㅇ리이는 성경말씀만 들을 때면 자세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질문-성경 말씀 안 들을 때는 자세가 달라?) 네!

(연구참여자3)

스ㅇ이는 하나님 얘기를 자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알아요. 스ㅇ이는 노래 부를 때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는”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지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ㅇ리이요. ㅇ리이는 유치원에서 공연 시 찬양을 불러요.

(연구참여자13)

2. 교회의 의미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곳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유아들의 구체적인 반응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 예배, 기도, 찬양의 장소

유아들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연구참여자 1 2, 7, 8, 15, 16) 기도하고(연구참여자 4, 7, 13, 16, 17) 찬양하는(연구참여자 4, 8, 13, 17)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참여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유아가 교회를 예배, 기도, 찬양하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이에요. (연구참여자17)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연구참여자7)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나오고 생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맨 부르고... (연구참여자8)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게임도 하고 달란트도 받고 그래요. 내
달란트 3개, 누나 5개 (연구참여자2)

유아들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믿음이 좋은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이라는 요구를 반영한 그림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그리기는 선행연구자들(Heller, 1986; Kim, 2007; Tamminen et al., 1988)이 사용한 어린이 신앙 측정 방법의 하나이고, 특별히 스톤하우스와 메이(Stonhouse and May, 2010)는 하나님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촉진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그림은 자신이 풍선을 들고 교회에 가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선교, 설교 등의 글씨를 통해 교회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 그림은 찬양 악보, 십자가, 설교자, 기도자, 봉헌자 등을 통해 교회의 기능과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많은 유아가 믿음과 교회를 연결한 이유는 이 시기의 유아는 전조작적 시기의 특성을 보이므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과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그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1] 유아들이 그린 믿음에 관한 그림

이 밖에 유아들은 하트(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 예수님의 손이 친구들을 감싸고 있는 그림, 엄마가 드림스쿨(교회의 부서)에서 가르치시는 그림 등을 그려 믿음을 표현했다.

2) 영적인 기쁨을 느낌

유아들 중에는 교회에서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는 찬양이나 말씀 듣기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곳이에요. (연구참여자12)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14)

하나님을 믿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사님의 하나님 말씀 듣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연구참여자6)

3)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족을 느낌: 간식, 게임 등

유아들은 영적인 기쁨 외에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일에는 간식, 게임(놀이), 성경

이야기 듣기 등이 포함된다.

간식 먹는 시간 (연구참여자8)

다음세대에서 게임하는 것 재미있어요. (연구참여자 5, 16)

재미있는 놀이를 해요. 맛있는 간식도 주고... (웃음) (연구참여자1)

이야기가 끝날 때 텔레비전으로 동화를 보여줬어요.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질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 줄 수 있니?) 하나님은 누구 남자한테 “머리를 자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쁜 여자에게 남자를 잡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방법을 말해서... (연구참여자 3)

유아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유아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거나 돌보는 성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중간에 중단하고 어머니가 나머지 부분을 면담해 주었던 연구참여자 11와 어머니가 대화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어머니 질문-장로님께서 스미이에게 어떻게 해 주셨어?) 차 태워줬어. 과자 사줬어. (어머니 질문-그래서 스미이가 좋아했지?) 응~ (연구참여자1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자는 유아들이 인식하는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17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

은 믿음을 종교적 행위, 선행의 실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삶의 방향과 사명 제시로 이해하였고, 면담 중에 풍부한 성경 지식 및 신학적 용어를 선보였으며 부모, 사역자 또는 친구를 신앙의 모델로 선택하였다. 유아들은 교회를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곳, 영적인 기쁨이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일(간식, 게임) 등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독교교육학 박사과 현장 사역자 18인을 면담하고 분석하여 유아 신앙의 특성을 분석한 김성원(2020)의 연구에서 유아기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좋아함(하나님 사랑, 교회와 예배를 사모함, 하나님과 이웃 섬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영적 민감성(말씀을 스펀지 처럼 수용, 믿음의 고백, 말씀의 실천, 어려움 중에 발견되는 믿음), 신학적 개념의 이해, 성품으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예배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신앙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생활이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앙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이영주·엄정애, 2008)에서 지지된다. 아울러 기독교교육은 영유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즉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고 대화하며 그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금희(2008)의 주장에서도 뒷받침된다. 영유아 신앙교육의 기본 전제는 예배이다.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형성된다. 영유아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한다(장화선, 2011). 예배와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 결단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유아들이 믿음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로 표현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착하게 사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양보를 통한 선행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이 면담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교회교육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성품은 신앙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김성원, 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예배를 통해 순종을 다짐한 어린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 영성을 형성하게 된다는(장화선, 2011) 주장에서도 뒷받침받는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와 복음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어린 시기부터 구별된 기독교 성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은 귀감이 된다.

유아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믿음 외에도 종교적인 행위를 추가한다거나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대부분이 죄를 전인적인 죄 개념보다 구체적인 윤리적 잘못으로 이해한다는 고원석(2007)의 주장에 의해 지지받으며 죄와 구원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을 면담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장화선, 1999)와 유사하다.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독교 영성의 원리는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로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주연수, 201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교리는 믿음을 선행의 실천이라고 이해하는 유아가 수용하기에 어렵긴 하겠으나, 늘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유아들에게 어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연구에 참여한 일부 유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신앙교육의 목적이 고통과

혼란함이 공존하는 세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견해(Wilhoit, 1991) 그리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라는 주장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장화선, 2002).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에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를 암기하던 목사님 자녀로부터 자신이 만약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면 ‘예수님’을 기록해 음료를 판매하고 싶었던 유아에 이르기까지 유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경건하게 자라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 용어에 익숙하였다. 다양한 성경 인물과 그들의 행한 신앙 업적을 나열하였으며 ‘섬김’, ‘구원’,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등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카톨릭계 히브리어 학자인 까발레티(Cavalletti)는 어린이가 본질적인 핵심에 반응하는 속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성경의 기본 주제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케리그마(Kerygma)라고 주장하였다. 즉 어린이들이 성경으로부터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인간되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리스도 등의 본질 진리라고 보았다(유선희, 2013에서 재인용). 그러나 비어스(Beers, 1981)는 보다 폭넓게 만 4, 5세 유아들의 경우 하나님, 예수님, 성경, 가정과 부모, 교회와 주일학교, 타인, 천사와 종말에 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독교교육 전문가를 면담한 연구에서 유아기에는 하나님 개념,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개념, 선악에 대한 개념 등을 형성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유아는 교회, 예배, 기도, 전도, 천국과 지옥, 교회 출석 이유, 성령님 등을 이해할 수 있다(김성원, 2020). 복음 전도자들은 유아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기회가 주

어질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무시로 가르침으로 유아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많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제안한다. 유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믿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풍성한 말씀의 세계를 알고 누리는데 영적 향배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유아들이 평가한 신앙이 좋은 인물은 부모, 사역자 또는 친구들이었다. 부모가 사역자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하였고, 세대통합 예배를 드림으로 부서 사역자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유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선택하였다. 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착하며 또는 바람직한 영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사역자와의 상호작용을 가운데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모델링하며 정서 반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곧 영성의 기초가 된다는 주연수(2019)의 견해에서 뒷받침된다. 아울러 영적 성장이 정서적 성숙에 의존되는 어린이들의 특성과 연계하여 만 4, 5세 유아들은 주변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과 연관지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 또한 이러한 성숙한 성인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때 실재가 된다는(Self, 1986) 주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모가 사역자가 아닌 유아들도 신앙의 모델로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부모교육과 가정의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영향력이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어린아이들을 따뜻함으로 반겨주는 중요한 타인들의 존재는 유아의 신앙 형성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믿음을 종교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교회를 종교적 활동을 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한 유아 145명을 대상으로 한

장화선(2002)의 연구에서 유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질문했을 때 예배드리는 곳(40명), 기도드리는 곳(20명), 찬양하는 곳(9명), 하나님을 믿는 곳(7명), 모름(12명)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다양한 모임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개념은 적절한 개념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일부는 영적이거나 간식이나 즐거운 활동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표현에 예배, 기도, 묵상 등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신앙적 훈련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 생활'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주장처럼(민시인·김미숙,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통한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 영유아도 신앙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의 전통과 친숙해야 하며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며 성장해야 한다(양금희, 2008).

본 연구의 발견에 기초하여 유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등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기본과 말씀과 신학적 개념을 바르고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사역, 신앙과 구분된 삶이 연계되는 훈련, 부모의 영향력을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두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교회, 기독교 유아 교육기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예배하고 공동체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며 자라가 바란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시행된 바가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신앙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면담법의 특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생각과 느낌을 언어에 정확하게 담을 수 없는 한

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또는 질문지법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신앙을 파악,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유아들을 면담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관한 스토리와 개념을 듣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유아 17명을 면담하였고 그들의 신앙에 관한 생각을 읽고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열 개의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이 제시되었고, 유아들의 반응을 통하여 ‘믿음’과 ‘교회’의 의미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유아들은 믿음을 기도, 찬양, 예배 등의 종교적 행위, 선행의 실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 이해하였다. 또한 믿음이 삶의 방향과 사명을 제시함과 탁월한 성경 지식 및 신학적 개념을 알고 있음을 나타냈고 신앙의 모델로 부모, 사역자 또는 친구를 선택하였다. 유아들은 교회를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곳,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곳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경험함으로써 만족을 누리는 곳으로 알고 경험하였다. 믿음과 교회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는 유아들에게 신앙과 교회(교회학교)가 어떤 이미지인지 보여주며 말씀으로 유아들을 교육할 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하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유아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와 현장의 신앙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원석 (2007). 아동들에게 죄와 구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학적 의미와 경험적 관찰간의 비판적 대화. **기독교교육논총**, 15, 131-170.
- 김국환 (2006).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학.
- 김성원 (2020). 유아 신앙 형성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한 유아 신앙. **신학과 실천**, 68, 411-449.
- 김정신 (2002). 유아를 위한 영성교육의 홀리스틱 방향 탐색. **홀리스틱교육연구**, 6(1), 29-49.
- 김정신 (2004). 영성지향 유아교육의 목적 설정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107-133.
- 민시인·김미숙 (2011). 기독교 유아의 신앙생활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 유아부 예배와 자모실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6(4), 75-106.
- 성미영 외 (2017).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서울: 학지사.
- 양금희 (2008). 영유아의 하나님 이해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방향. **장신논단**, 32, 111-153.
- 유선희 (2013). 어린이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신학논단**, 71, 169-202.
- 이영주·염정애 (2008).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1), 91-119.
- 장화선 (1999). 신앙면담을 통한 교회 어린이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 279-298.
- 장화선 (2002). 어린이 신앙발달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 155-185.
- 장화선 (2011). **어린이 신앙교육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양식.
- 정정미 (2010). 유아영성의 이해와 그 교육적 적용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7, 383-403.
- 주연수 (2019). 영·유아기 영성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형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8, 243-283.
- 황해익·최해진·권유선 (2019).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2판)**. 고양: 공동체.
- Beckwith, I. (2004). *Postmodern children's ministry: Ministry to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MI: Zondervan.
- Beers, V. B. (1986). Teaching theological concepts to children. In R. E. Clark, J. Brubaker, & R. B. Zuck(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363-379). Chicago: Moody Press.

- Hay, D., & Nye, R. (2011). **어린이 영적 세계의 탐구**. 유명복 역. 서울: 대서. (원저 2006 출판).
- Heller, D. (1986). *The children's Go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S. W. (200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od concept and specified parental predictors, and the difference in children's God concept across age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Fort Worth, TX.
- Seidman, I.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 ·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9 출판)
- Self, M. M. (1986). Understanding fours and fives. In R. E. Clak, J. Brubaker, & R. Zuck(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109-124). Chicago: Moody Press.
- Stonehouse, C., & May, S. (2010). *Listening to children on the spiritual journey: Guidance for those who teach and nurtur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Tamminen, K. et al. (1988). The religious concepts of preschoolers. In D. Ratcliff(Ed.), *Handbook of preschool religious education* (59-81). Birmingham, AL: Religiousn Education Press.
- Wilhoit, J. (1991). *Christian education: The search for mearning*(2nd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the Young Children's Perception of Faith

Sungwon Kim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y analyzing concepts related to how they understand the faith.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interviews of seventeen young children who had not yet entered elementary school. Answers to ten interview questions were analyzed and research participants' understandings of belief and church were identified. The results have shown that participants consider faith to be religious practices such as prayer, praise and worship, the practice of good conduct, the key to heaven and providing direction and mission for their lives. Participants also revealed the acquisition and internalization of biblical knowledge and theological terms and listed parents, ministers or friends as the important role models of faith. They recognized the church as a place where religious practices are performed, where spiritual joy is felt and where pleasure is experienced because they do things they like.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regarding young children's faith and as the principles of the practice of it.

《 **Keywords** 》

young children's faith, qualitative study, interview, belief, church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